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9학년도 7월 01일 1교시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p>※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 답란에 작성하세요.</p> <p><b>[1~5]</b>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p>(가) 만덕이 스무 살 무렵,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관청에서 만덕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기생 장부에서 빼내어,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후, 만덕은 양민의 신분으로 살았으나 나이가 들도록 남편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만덕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녀는 물가의 변동을 잘 알아서 알맞은 때에 물건을 샀다가 되팔았다. 수십 년 뒤에 만덕은 부자로 이름이 드날릴 정도로 돈을 모았다. 을묘년(1795년, 정조 19년)에 탐라(耽羅)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계속 굶어 죽었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백성을 먹이라는 명을 내렸다. 거친 바닷길 팔백 리를 뚝단배가 배틀에 북 나들듯이 자주 왕래하였으나 제때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만덕은 천금(千金)을 내어 육지에서 쌀을 사서, 여러 고을의 뱃사공에게 제때에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 만덕은 그 십분의 일로 자신의 친척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실어 보냈다. 굶주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관청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관청에서는 굶주린 정도에 따라 백성에게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쌀을 받은 백성들은 관청을 나서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였다. 모두가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라고 여겼다.</p> <p>(나) 제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왕명(王命)을 알려 주며 물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올라가 임금님 계신 곳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이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당시 나라의 법으로 탐라의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주 목사가 다시 만덕의 소원을 아뢰었다. 임금이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했다.</p> <p>(다) 만덕은 반년을 지낸 뒤 정사년(1797년) 늦봄에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만폭동, 중향성 등의 기이한 경치를 차례로 구경했다. 만덕은 금부처를 마주하여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공양하였다. 탐라에 불법(佛法)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덕은 선여덟의 나이에 절과 불상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안문령을 넘고 유점사를 거쳐 고성으로 내려갔다. 삼일포에서 뱃놀이도 하고 통천의 충석정에도 올랐다. 만덕은 천하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본 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p> <p>(라) 며칠을 머문 뒤에 귀향하려고 궁궐에 나가 돌아가겠다고 고하니, 왕과 왕비께서 전과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 만덕의 이름이 서울에 가득하여 삼정승 이하 사대부들이 한 번만이라도 만덕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만덕은 떠날 때, 채 정승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이제</p>		<p>살아생전에는 다시는 정승님의 얼굴을 뵈 수 없겠군요.” 이어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자 채 정승이 말했다. “옛날 진나라 시황제와 한나라 무제는 바다 밖에 삼신산이 있다고 말했다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하고 금강산을 봉래산이라 하지. 자네는 탐라에서 성장하여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시고, 이번에 또 금강산을 두루 돌아다녔으니, 삼신산 가운데 두 곳을 직접 유람한 셈이네. 천하의 수많은 남자조차도 이렇게 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작별하는 마당에 어찌서 마음 약한 아녀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고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여 ‘만덕전’을 짓고는 웃으며 만덕에게 주었다.</p> <p><b>1.</b> 이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3점)</p> <p>① 작가의 상상력이 바탕이 된 허구적 이야기다.  ② 한 인물의 삶에서 가치 있는 행적을 기록한 글이다.  ③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기록한 글이다.  ④ 자신의 교훈적인 생애 및 공적을 솔직하게 서술한 글이다.  ⑤ 어떤 인물이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글이다.</p> <p><b>2.</b> 만덕이 살았던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은?(2점)</p> <p>① 돈과 인맥으로 신분을 사거나 팔 수 있었다.  ② 여성들은 가족 없이 집 밖을 나서는 것이 불가능했다.  ③ 불법(佛法)에 의존하는 나라를 원망한 백성들이 많았다.  ④ 왕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던 사회로 임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⑤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 심한 신분차별이 있었다.</p> <p><b>3.</b> &lt;보기&gt;에 드러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만덕의 행동을 평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gt;</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빈부 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한국, 성 평등, 세계 107위 ‘하위권’</p> </div> <p>① 만덕은 신분 평등을 위해 자신의 것을 선포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② 만덕은 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③ 만덕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남녀차별 문제에 대해 귀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④ 만덕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⑤ 만덕은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동적인 자세로 장사기술을 익히고 배웠다.</p> <p style="text-align: right;">☞ 뒷면에 계속</p>			

4. 만덕의 행동에 대해 당시 ‘사대부’들이 보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만덕이 자신들에게 베푼 쌀로 인해 만덕에게 존경심을 가졌다.
- ② 임금께서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만덕을 시샘했다.
- ③ 자신들도 감히 하기 힘든 일을 한 만덕의 행동을 듣고 만덕을 보고 싶어 했다.
- ④ 만덕이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한계에 도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⑤ 당시 사회적으로 지켜오던 금기를 깨는 만덕을 보며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다.

5.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감상 방법이 다른 하나는?(3점)

- ① 시간 순서대로 서술된 만덕의 가치 있는 삶을 살펴 봐야겠어.
- ② 체제공과 거상 김만덕의 관계를 보면서 나의 교우 관계를 살펴보게 됐어.
- ③ 만덕의 가치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봐야겠어.
- ④ 그 당시에 있었던 차별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 ⑤ 만덕이 자신의 재주를 잘 이용한 것처럼 나도 나의 재능을 발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야겠어.

[6~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숯들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발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축했다.

— 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 글썄,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게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짓든 데라서

맴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가)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세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나)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세 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나) 깊고 깊은 두메산골

내 옛 ㉠고향은

호박꽃, 박꽃 지붕에 피고

㉡호롱불 봉창은 가난했었다.

누런 들판엔 매뚜기들이

후두두 후두두두두 떼 지어 날아

수수밭, 콩밭에도 푸짐했었다.

㉢모깃불 명석 마당 등잔불 타고

㉣저녁 밥상 둘러앉은 식구들 위에

하늘에서 은은히 ㉤별빛도 내려와

(다)(A)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ㄷ)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B)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C)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리)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중략)

지금 눈 나리고/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D)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마) 복권 열풍 부자 열풍 몰아치는 백수 열풍

(ㄹ)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피시방에 출근하면 내 계좌에 쌓여 있는

사이버 머니 텅 빈 주머니

내 떨썈한 손 하얀 손으로 변해 버렸네.

우우우 놀자 우우우 놀자.

지겨워도 놀 수밖에 없잖아 일이 없잖아.

우우우 놀자 우우우 놀자.

이러다가 늙어서도 놀까 봐 걱정되잖아.

☞다음 장에 계속

6. 위와 같은 갈래의 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모든 글에서 음악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② 일반적으로 음악적 리듬감은 겉으로 드러난다.
- ③ 작가는 시적화자를 내세워 자신의 중심생각을 전달한다.
- ④ 작가가 내세우는 시적화자는 시에서 항상 1인칭으로 제시된다.
- ⑤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7. (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은 말하는 이가 방을 얻으려는 이유가 나타난다.
- ② ㉡은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은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가족 간의 정과 역사,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는 뜻이다.
- ⑤ ㉣은 말하는 이가 느낀 감동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8. (가)에서 말하는 이가 아주머니에게 세놓으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로 옳은 의견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정국 : 집이 너무 정갈해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
- ② 진이 : 집 주인 부부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 ③ 지민 : 도시에 나간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 ④ 슈가 : 가족을 위하는 아주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군.
- ⑤ 태형 : 아주머니가 마음으로는 방을 쓰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9. (나)의 ㉠~㉣ 중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말하는 이의 정서는 애뜻함과 그리움이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소재를 통해 농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했었다’라는 종결 표현을 통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11. (가)~(마)의 (ㄱ)~(ㅍ)에 사용된 표현법과 같은 표현이 쓰인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ㄱ) - 강물이 말없이 흐른다.
- ② (ㄴ) - 내 마음은 낙엽이다.
- ③ (ㄷ) - 그가 속삭이듯 이야기한다.
- ④ (ㄹ) - 그 누가 그를 두려워할까.
- ⑤ (ㅍ) -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12.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 -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미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나타낸다.
- ② ㉡ - 우리 민족이 꿈꾸는 꿈, 이상, 소망을 나타낸다.
- ③ ㉢ - 화자가 그리워하는 평화롭던 조국을 나타낸다.
- ④ ㉣ - 고향을 찾는 나그네로 추억을 떠올리는 인물이다.
- ⑤ ㉤ -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정성을 나타낸다.

13. (다)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A)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조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② (B)는 이상을 현실로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③ (C)와 (D)의 상징적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 ④ 둘 다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감이 느껴진다.
- ⑤ 모두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1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를 해석할 때 옳지 않은 것은?(3점)

< 보기 >

#### 이육사 연표

1904	4월 4일 경북 안동에서 출생
1927	‘장진홍 의사 의거’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 형무소에 투옥, 이때의 죄수 번호인 264번을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음.
1929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1933	난징의 조선 군사 간부 학교 졸업 후 귀국, 이때부터 일제의 감시하에 체포와 구금 생활을 반복
1939	“문장” 8월 호에 시 ‘청포도’ 발표
1943	헌병에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
1944	베이징 감옥에서 사망
1946	유고 시집인 “육사 시집” 발간

- ① 강인 -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조국을 잃어 슬픔에 젖어 있는 마음을 표현했어.
- ② 홍민 - ‘고달픈 몸’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수많은 지사들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의조 -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간절히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지.
- ④ 인범 - 5연에서는 조국의 광복을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⑤ 희찬 - 이 시가 지어졌을 당시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은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풍토가 있었겠군.

☞ 뒷면에 계속

15. <보기>의 감상과 관점이 다른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보기>

이 시는 푸른 색과 흰 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시는 인물 간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오늘날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는 문장을 끝맺지 않고 끝남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 ④ (다)의 시는 시인의 삶을 통해 볼 때 이 시는 일제에 저항하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 ⑤ (다)는 청포도, 푸른, 칠월, 식탁 등의 거센 느낌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 **포성**이 울렸다. 돌산을 뚫느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 안의 기둥이나 서까래가 울고 흙벽이 떨어졌다.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 **피란민**의 행렬(行列)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路毒)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 **금불이** 따위의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꿈무늬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다시 홀연히 길을 떠났다.

(나) 지옥의 가장귀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형질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쭉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 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갭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

(라) “요,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뭇이디야!”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빛살이 웅색하게 남아 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 적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티 터럭손 하나 건덜지 마시오!”

(마)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 데 없는 머슴애였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빠치는 개구쟁이였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뿌르르 잘 타고, ㉤ **돌병**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수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 꽃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왕잠자리를 우리보다 숨쉴 있게 낚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박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 봉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뱃불 혼드는 시늉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 **인공 치하**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을 우리는 마냥 키드득거리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16. ㉠~㉥ 중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끼리 옳게 연결된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7. (가)~(마) 중 명선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드러나는 단락은?(3점)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사투리와 비속어의 사용으로 향토성과 사실성이 느껴진다.
- ②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다.
-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이 전쟁으로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 ④ 전쟁이 진행되는 흐름에 따라 현재형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⑤ 어린 아이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 주고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19. (가)~(마)를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3점)

- ① (가) - (라) - (마) - (다) - (나)
- ② (가) - (마) - (라) - (다) - (나)
- ③ (나) - (다) - (라) - (가) - (마)
- ④ (라) - (가) - (나) - (다) - (마)
- ⑤ (라) - (나) - (가) - (다) - (마)

20. 이 글에 드러난 삶의 모습으로 당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짐작한 것으로 옳은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피란민들은 먹을 양식과 물자가 부족하여 살아가기 힘들었다.
- ② 사람들의 생활이 힘겨워져도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함께 전쟁을 이겨냈다.
- ③ 피란민이 지나가는 마을의 사람들은 피란민을 불쌍하게 여기며 반갑게 맞이했다.
- ④ 어른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전쟁고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먹여 주고 재워 주었다.
- ⑤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피란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21. <보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가 나타나는 단락은?(2점)

<보기>

-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 된다.
- 어른들의 탐욕스러움을 드러낸다.
- 명선이와 어른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명선이를 죽음으로 이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 떼거리의 피란민(避亂民)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작처럼 되뚱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똥똥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썩재기, 우리 눈에 비친 그 애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 없을 정도였다. 우리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 데도 그랬다.

(나)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살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堂山) 숲 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먹따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훑아 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헤집고 다니며 거둬거둬 내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여 있었다.

“너그 놈들이 누구누군지 내 다 안다야!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봐 뒀으니께 날만 샀다 허면 물고(物故)를 낼 것이다야!”

㉧해뜰해뜰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풍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자 아모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나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쑥으로 달랬다.

(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뱅뱅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싯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江心) 쪽을 향해 곧장 뻗어 나가다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엇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져 있었다.

(라)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여!”

모여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쟁쟁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 것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요,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뭇이디야!”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툭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마) 또 한바탕 위험한 곡예 끝에 그 애는 기어코 그 쥐바라송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 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뱅글뱅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송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싯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22. ㉠~㉥의 낱말 뜻으로 옳은 것 두 개를 고르면?(3점)

- ① ㉠ : 더럽게 엉겨 붙은 때의 조각이나 부스러기
- ② ㉡ : 여러 도구로
- ③ ㉢ :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 ④ ㉣ : 잠시도 늦추지 아니하게
- ⑤ ㉥ : 재주, 능력

23. (가)~(마) 중 명선이가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3점)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 뒷면에 계속

24. ㉠~㉣중 의미가 다른 것은?(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감상 방법이 다른 한 사람은?(3점)

- ① 나연: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② 정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당시 피란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③ 지효: 이 소설에 글쓴이의 사상과 체험 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면서 읽고 있어.  
 ④ 모모: 소설의 등장인물 간 갈등을 살펴보면서 읽으면 작품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  
 ⑤ 채영: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사람들의 삶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졌어.

26. (다)와 같은 서술 방식이 사용된 것은?(3점)

- ① 고교생이나 중학생이 모두 입시에 매여 사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고등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곳에 눈 돌릴 사이가 없다면, 중학생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② 시꺼멓게 탄 얼굴에 움푹 꺼져 들어간 두 눈자위, 그리고 코밑이랑 턱에는 수염이 지저분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입 언저리에는 파리 떼가 바글바글 붙어 있었다.  
 ③ 집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양철집, 스라브집이라고 부르는 양회집, 스테이트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요즘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초가집도 벗짚 초가집, 밀짚 초가집, 갈대 초가집으로 나눌 수 있고, 기와집도 재래식 기와집, 개량식 기와집, 또는 검은 기와집, 빨간 기와집, 푸른 기와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꽃가루 예보제는 전국 여덟 개 지역 병원 옥상에 설치된 채집 장비에 담긴 정보를 이 학회 산하 꽃가루 위원회에서 매주 분석해 일반인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꽃가루가 발견되면 분석 책임자가 이 꽃가루가 다음 한 주 동안 어느 정도 날릴 것이며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분석해 예보하게 된다.  
 ⑤ 연탄 난로는 받침, 몸통, 연통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받침은 연탄불을 갈 때 불뚱이 마루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통 밑에 받쳐 놓는 것이다. 불뚱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 않도록 받침은 양철로 덮여 있다. 몸통의 아래에는 옆으로 공기 조절 장치가 있고, 몸통의 위에는 연통과 연결되는 구멍이 있다. 뚜껑을 열면, 연탄 재를 끄집어 내거나 새 연탄을 갈아 넣을 때 쓰이는 구멍이 있고, 그 속에 화덕이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유식 (세탁소 사람들을 훑어보며) 알았어, 일단 가자고 (강태국에게 명함을 주며) 나중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강태국에게 슬쩍)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강태국 ( ㉠ ) 어쨌거나 어머님 잘 보내 드리시지요.

서옥화 ㉡50프로라!

장민숙 (서옥화에게) 아줌마는 왜 안 가?

서옥화 여기 일 잘하는 아줌마 하나 안 필요해? 50프로가 당길 텐데?

장민숙 이 아줌마가 사람을 뭇로 알고, 공짜라도 아줌마는 싫어!

서옥화 공짜로 누가 하기는 하고? 아니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은데…….

염소팔 4년 7개월 똥을 치웠으면 정도 들었을 텐데, 가서 임종하시는 것도 좀 봐 드리면 덕이 되고 좋겠구먼.

서옥화 그렇겠지? 그게 도리겠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세탁소를 둘러보며)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 세탁소네요. (강태국에게 애교를 부리며 코멘소리로) 강 사장님, 50프로 (영당으로 치고 간다.)

(나) 안경우 (안미숙에게) 정말 김순녀 맞아?

안미숙 맞다니까. 주민 등록증 확인했어. 큰오빠는 미쳤어 정말. 반이 뭐야?

염소팔 ( ㉣ ) 돈벼락아, 오기만 와라! (기도하듯이 옷 위에 걸터앉아) 내 엄니 모셔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머느리 손에 잡숫게 해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이 넓디넓은 서울 천지에 우리 모자 머리 둘 곳이 없어 한 분 어머님도 못 모시고 불효자로 이날 입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지발 덕분에 우리 엄니랑 두 다리 뻗고 잘 집 한 칸 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 ㉤ ) 집 한 칸. 아가씨 데려다 앉히고 엄니 모시러 가고……. 엄니, 내는 이제부터 도둑놈입니다.

서옥화 (자신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누구든 찾기만 해라, 내가 쪽쪽 다 빼앗아 줄 테니. 남들이라고 눈이 셋이고 팔다리가 열씩이라 자가용 타냐? 서옥화 팔자 한번 바꾸어 보자고

(다) 강태국 인간 강태국이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인가? 이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 있게 살아 보겠다는데 왜 흔들지? [A] 돈이 뭐야? 돈이 세상 전부야? 그런 거야? 이 세상이 ㉦‘돈’ 세상이야? 돌았다 이거지? 돌아 버린 세상에 같이 돌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돌지도 못하잖아요. 아버지 책임져요! (셔츠 소매에 눈물을 닦고) 아버지, 나 괜찮아요. (코를 풀고) 나요, 세탁소

☞ 다음 장에 계속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아버지만 알면 돼. 아버지 다 알잖아, 그럼 됐지. ( ㉠ ) 네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 (다시 일어나 일을 하며 흥얼거린다.)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라) 사람들, 점점 더 음흉스럽게 ㉢점승 소리로 으르렁댄다.

강태국 ( ㉡ ) 우리 세탁소에 도둑고양이들이 단체로 들어왔나?

사람들 (단체로) 야옹!

강태국 (잡자장을 단단히 말아 손에 움켜쥐고)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만 물러가야지. 이거 어두워서, 빨리 비워 드리지 못하겠는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김정숙

**27.**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3점)

〈보기〉

- ㉠ 시나리오 대본이다.
- ㉡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 ㉢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표현한다.
- ㉣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5단 구성이다.
- ㉤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 할머니의 옷을 찾는 계기가 되며,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됨.
- ② ㉡: 강태국 아버지의 세탁 비법이 있는 공간을 표현함.
- ③ ㉢: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표현함.
- ④ ㉣: 돈이 전부인 세상과 돌아버린 세상을 중의적으로 표현함.
- ⑤ ㉤: 세탁소에 몰래 숨어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29.**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① 안미숙은 어머니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자 한다.
- ② 안유식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는 알지만, 돈이 중요한 인물이다.
- ③ 염소팔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는 알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태도가 바뀐다.
- ④ 서옥화는 오랜 간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지 않은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다.
- ⑤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 부족함으로 인해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30.**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 ① ㉠ (기가 막혀 웃으며)
- ② ㉡ (자신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 ③ ㉢ (확인시키듯이)
- ④ ㉣ (세상에 대고 자책하듯이)
- ⑤ ㉤ (알겠다는 듯이 짐짓 과장스럽게)

**31.** (다)의 밑줄 친 [A]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3점)

〈보기〉

복권 열풍 ①부자 열풍 몰아치는 ②백수 열풍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피시방에 출근하면 내 계좌에 쌓여 있는 사이버 머니 텅 빈 주머니  
③내 멸절한 손 하얀 손으로 변해 버렸네.  
우우우 놀자 우우우 놀자.  
지겨워도 ④놀 수밖에 없잖아 일이 없잖아.  
이러다가 ⑤늪에서도 놀까 봐 걱정되잖아.

**32.** 위 글의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느 동네에도 있을 것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세탁소이다.
- ②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다움과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강태국이 신념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 ④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다른 이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사막처럼 인정과 사랑이 매마른 현실에서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 뒷면에 계속

〈소설 문제〉

33. <소설 동백꽃>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하루는 ‘나’도 우리 집 수탉에게 된장을 먹이고 용을 쓸 때까지 기다려서 점순네 닭과 싸움을 붙였지만 또다시 우리 닭이 지고 만다.
- ②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산으로 올라서려는데, 점순이네 수탉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우리 닭을 다시 쪼아서 선혈이 낭자했다.
- ③ 집에 오자 닭싸움을 보며 춤을 추고 있는 점순이를 보자 약이 오른 ‘나’는 지게막대기로 점순이네 닭을 때려죽였다.
- ④ 나흘 전에 ‘나’는 점순이가 고구마를 주는 것을 거절했었는데, 점순이가 화를 내며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음날부터 점순이는 사람들이 없으면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집 수탉과 싸움을 붙였다.
- ⑤ 점순이의 위협과 위로에 점순이와 노란 동백꽃속에 함께 파묻힌 나는 향긋한 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이때 점순이는 어머니가 부르자 겹을 먹고 기어서 내려가고 ‘나’는 바다로 내뺐다.

34. <소설 꺼삐딴 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이인국은 종합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이다. 병원은 매우 정결하여 먼지 하나 없지만, 치료비는 다른 병원보다 저렴하다.
- ②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회중시계를 부상으로 받는다. 잠꼬대도 일본어로 할 정도로 완전한 황국 신민으로 동화되어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 ③ 광복 후의 격변기 속에서 그는 미군 점령하의 사상범으로 낙인 찍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질 환자를 발견, 이인국은 수용소 안에서 응급 치료를 맡는 행운을 얻는다.
- ④ 그는 1·4 후퇴 때 가족과 함께 월남, 거제도 수용소에서 어머니를 잃게 된다. 이인국은 소련군 주둔 시에도 그 상황에 맞는 처세술로 현실에 적응하며 소련군 점령기 때 같이 일했던 미숙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 ⑤ 시내 호텔에서 브라운을 만난 이인국은 손목시계를 그에게 선물하며, 그의 취향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책감으로 고민한다. 아무튼 이인국은 그의 특유의 처세술로 브라운을 만족시키면서 국무성청장을 받을 목적을 달성한다.

35. <소설 치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점)

- ① ‘아저씨’는 미국에서 대학도 다녔고 나이가 서른셋이나 되지만, 도무지 철이 들지 않아서 딱하기만 할 뿐이다.
- ② 착한 아주머니를 친가로 쫓아 보내고 대학을 다니다가 신교육을 받았다는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무슨 민주주의 운동인지를 하다가 감옥살이 5년 만에 풀려났을 때, ‘아저씨’는 이미 위장병 환자가 된다.
- ③ 식모살이로 돈 100원을 모아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던 참이었던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정성껏 구완하여 이제 병도 어지간히 나아가지만, 정작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민주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다.
- ④ ‘나’가 보기에, 정치학을 공부했다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서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않고, 남의 재산 뺏어다 나누어 먹자는 불한당질을 또 하겠다니 분명 헛공부한 게 틀림없다.
- ⑤ 일본인 주인의 눈에 들어 일본 여자에게 장가들어 잘 살겠다는 ‘나’를 도리어 딱하다고 한다. 그러니 ‘나’가 보기에 ‘아저씨’는 도통 세상물정도 모르는 참 한심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끝>-----

※ 선택형 35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35문항)	
100	100



## 선택형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2	21	2
2	4	22	1,4
3	3	23	5
4	3	24	3
5	1	25	4
6	3	26	2
7	2	27	5
8	4,5	28	4
9	2,3	29	3
10	1,3	30	4
11	1,4	31	1
12	5	32	4
13	4	33	2
14	1	34	2
15	2,4	35	5
16	3,5	이 하	여 백
17	3		
18	1,5		
19	1		
20	1,5		

-----<끝>-----

※ 선택형 22문항, 서술형 6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합 계 (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선택형(22문항)	서술형(6문항)	
65	35	100